

대를 이어 지켜가는 '古島'의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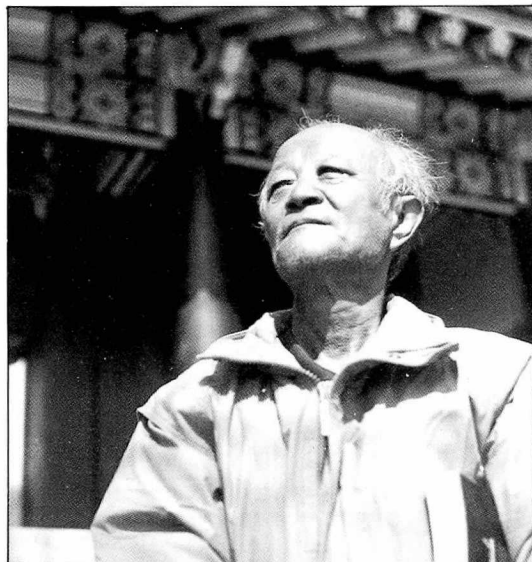
강화도 '백합사' 2대째 주인 금동수씨

결코 혼한 일은 아니지만, 대물림으로 가업을 지켜가는 일이 이젠 그리 새삼스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것이 '문화재급' 대물림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업'의 의미가 짙은 대물림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대물림의 시기가 한 지역의 '쇠락기'와 맞물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세대는 더 대물림을 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일 터이다.

'섬'이라는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뱃길을 거치지 않고도 서울에서 한시간 반가량만 그저 서해안을 향해 가면 당도할 수 있는 곳이 강화도다. 그만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손해'를 덜 본 셈인 이 덩치 큰 '古島'에 꼭 3개의 서점이 있다. 그중 일제시대인 1930년에 개점한 이래 지금까지 60년간 2대에 걸쳐 서점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백합사'는 그 전통과 고집에 있어 강화도의 명물로 꼽히고 있다.

선천으로부터 이 서점을 물려받은지 올해로 34년째가 되는 琴東秀씨(60)는 "대물림으로 가업을 잇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가업이 돈과는 거리가 먼 서점이고, 그것도 점점 침체돼 가는 지역에서 계속해왔다는 사실에 더 의의가 있을 것 같다"며 백합사가 갖는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한다.

琴씨의 나이보다 "꼭 1년반 위인" 백합사가 선천 正順씨에 의해 강화국민학교 정문 바로 옆에 문을 열었던 193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서점'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방구'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한다. 보통학교의 교과서 지정공급소를 겸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이후 50년대에 들



"대물림으로 가업을 잇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돈과는 거리가 먼 서점들, 그것도 점점 침체돼가는 지역에서 계속해왔다는 사실에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동수씨.

어서면서 단행본분이 일차 본격적인 서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 백합사라는 이름은 당시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숙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문인들이 '숙고 끝에' 지어준 것으로 "서점이름치곤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 같다"는 것이 琴씨의 '간판평'이다.

자신은 물론 누이동생 2명까지 대학교육을 시킬 만큼 교육열이 대단했던 선친 덕에 "한수 이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었던 중앙대 경제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낫다"는 선친의 권유를 받아들여 1957년 백합사의 2대째 주인이 된다.

琴씨가 대를 이으면서 서점의 위치도 강화 국민학교 진입로의 '길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현재 15평 규모인 백합사의 주고객은 학생들과 학교선생님들. 자연히 취급서적들도 초중고 참고서 위주가 되고 일반 단행본은 전체 서적의 1/4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14년만에 같은 동네서점주인으로 분가하는 '뿌듯한' 일도 있었던 반면 크고 작은 경영위기를 수없이 맞았음은 능히 짐작할 만하다. 이른바 '대처'로 나가 사업을 벌여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때마다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터를 옮기지 말고 강화도만을 지키라"는 선친의 '命'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琴씨는, 나름의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연륜론'을 펴다. "서점을 오래 하다 보니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 책이 어느정도 팔릴지 대강 짐작할 수 있고, 출판유통업계의 흐름도 알아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외로 강화도가 '부촌'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나면 땅 팔고 이곳을 떠나고 말기 때문"에 "동네에서 아이울음 소리 듣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서점을 찾던 학생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琴씨는 「백합사」를 3대째 대물림하기 위해, 지금 고교 2학년인 차남에게 반승락을 받아온 상태다. "대학진학까지 포기한 아들에게 서점을 이 상태로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곧 30~40평 정도로 매장을 넓히고 책종류도 다양화시킬 계획"인데, 책을 사지 않더라도 맘편히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서점'으로 키워가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정확히 오전 8시에 서점에 나와 오후 4시까지 근무한 후, 저녁시간은 "아무 간섭없이 자유시간을 갖는다" 그는 한달에 2번 서점일 겸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오는 서울행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을 꼬박 강화도에 붙박아 놓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서점을 꾸려오다 보니 이제는 제자식대뿐 아니라 그 후대까지 계속 대물림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그는 지난 3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91년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의 한사람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정소연 기자

FULL PAGE 편집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루벌에서는 Macintosh 기종의 입력·편집 시스템 20여 set, 자체출력기 3대(300~3000 dpi) 등 최첨단 DTP 시스템을 보유하여 사보, 잡지, 광고디자인, 단행본과 같은 모든 홍보물제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앞서만큼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기획출판 **마루벌** Tel: 701-2391 / Fax: 701-2395

*마루벌은 신마루의 마루, 별판의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으뜸을 뜻합니다.

- 매킨토시로 작성된 file의 인화지·film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북 디자인에 뜻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남·여 유경험자에 한함)

